

중급 하 수준을 위한 영어말하기 능력향상 토론수업모형

고미숙*

¹서일대학교 비즈니스영어과

A Discussion Class Model to Improve English Oral Proficiency for Intermediate Low Learners

Mi-Sook Ko¹

¹Department of Business English, Seoi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중급 하 수준의 성인 영어 학습자의 말하기능력향상을 위한 토론수업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수업모형은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의 네 가지 기술을 모두 사용하여 학습자의 스키마(schema)지식을 높이고 토론전략을 연습하는 단계로 구성한다. 토론주제는 학습자들의 인지능력에 적합하고 언어학습의 동기를 높이기 위해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하여 10가지 주제를 선정한다. 토론식 수업모형의 교육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서울소재 영어과 2학년 26명을 대상으로 파일럿 실험을 한다. 공인영어말하기시험인 OPIc(Oral Proficiency Interview in computer)을 사용하여 사전, 사후시험을 실시하고 두 시험의 결과를 분석한다. 실험결과 참가자 대부분(82%)을 차지한 중급 하 수준이하의 학습자들은 실험 후 47%로 감소하였고, 실험 전 18%(5명)의 중급 중이상의 언어숙련도 분포는 실험 후 53%(14명)로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한 단계 수준상승이 있었다. 토론식 수업모형은 학습자들의 언어숙련도 수준에 관계없이 토론수업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대학교 수준이상의 영어학습자들은 자신의 인지능력에 적합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생각들을 좀 더 형식을 갖춘 지적인 언어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토론식 수업모형은 종전의 대화식 영어회화와는 다른 새롭고 효과적인 교수법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기대된다.

Abstract This paper suggests a class model to improve the English oral proficiency for intermediate low English speaking learners. Utilizing the four English skills (reading, writing, listening and speaking), the class model focuses on the learners' schema and discussion strategies. To enhance the learners' motivation and match their cognitive capacity, 10 discussion topics were prepared by surveying the learners. A pilot experiment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teaching effects of the discussion class model with 26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English in Seoul. The participants' oral proficiency was measured both before, and after the instructions by OPIc (Oral Proficiency Interview in computer).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the percentage of participants whose oral proficiency levels were lower than intermediate mid decreased from 82% to 47%. In addition, the percentage of participants with higher oral proficiency than intermediate low was increased dramatically from 18% to 53%, which supports the claim that through discussion, the class learners' diverse and creative ideas need to be expressed in a formal and intelligible language. Finally, through the findings of the study, the possibility of a discussion class can be expected, regardless of the learners' low level of oral proficiency.

Keywords : Class Model, Discussion Ability, English Discussion, English Speaking

본 논문은 2016년 서일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Mi-Sook Ko(Seoil University)

Tel: +82-2-490-7277 email: peacemsko@seoil.ac.kr

Received November 13, 2015

Revised (1st December 28, 2015, 2nd January 6, 2016)

Accepted March 3, 2016

Published March 31, 2016

1. 서론

영어교육의 목표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많은 정보와 자연스러운 목표언어로 이루어진 언어 환경에 노출되어 연습해야 한다. 외국어로서의 영어환경인 한국에서 전통적인 영어회화 교수법만으로는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1]. 영어회화 학습자들이 발음, 구문, 어휘사용에 당황하며, 회화강사와 짧게 한, 두 문장 주고받기만 하면 영어말하기의 궁극적인 목적인 자신의 생각을 설득적으로 전달하고 의견을 나누는 수준의 영어말하기로 발전할 수 없다[2]. 새롭고 효과적인 영어회화 교수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교사는 비록 통제적이지만 권장하는 토론상황에서 학습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편안하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도록 학습활동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교사는 학습자들의 언어숙련도가 모국어 수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구 표현이나 한, 두 문장으로 구성된 패턴중심의 말하기 학습활동을 선호하고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며 질문하는 학습활동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동시에 영어교사는 성인학습자들이 인지 학문적 언어능력(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 (CALP)) 즉, 일상생활에서 외국어습득의 문맥이 풍부한 언어활동을 하면서 습득하는 언어기술 (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ve Skills (BICS))이 아니라, 학교라는 목표 언어사용이 제한적이고 문맥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논리적인 사고력과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주제에 적합한 의견제시와 상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2].

본 연구에서는 한국 영어학습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급 하 수준 학습자들의 말하기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 모형을 제시하고 이의 교육적 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초급 상 혹은 중급 하 수준의 영어말하기 학습자로서 모국어 수준의 말하기 교수법 중의 하나인 토론중심의 영어회화 교수법을 통하여 영어교육의 목표인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위한 새로운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영어토론능력

2.1 토론능력의 구성요소

학습자들의 구두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활동이 바로 토론학습활동이다. 특정 주제에 관해 토론한다는 것은 의사소통 상대방과의 의견 및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또한 특정 주제에 관한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서 말을 주고받는 것이다. 따라서 토론능력은 설득적인 설명과 예를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고, 정중하게 제시하는 것과 더불어 자신의 의견과 다른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이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상대방의 반대의견이나 자신의 의견 중 불리한 점, 유리한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3].

토론능력은 스키마(schema)와 토론전략을 잘 활용함으로써 향상될 수 있다[4]. 스키마는 2가지 즉 주제관련 배경지식을 일컫는 내용스키마(content schema)와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있는 언어적 지식을 일컫는 형식스키마(formal schema)로 이루어진다. 토론전략은 토론 중에 상호간의 토론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예를 들어 의견을 먼저 말하거나, 중간에 개입 하거나, 지지, 반대, 설득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 토론전략은 쓰기에서 말하기로 모드를 전환하는 전략을 말한다. 따라서 중급 하 수준의 영어능력을 가진 한국 성인학습자들은 토론학습활동에서 주제관련 자료읽기와 분석을 통하여 내용스키마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목표언어를 이용한 자료읽기에서 관련 어휘와 주요 표현, 문장구조지식을 습득하면서 형식스키마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토론 능력은 읽기활동을 통하여 토론능력의 한 구성요소인 스키마의 전반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2.2 토론과정

학습자들은 특정 주제에 관한 목표언어로 된 자료읽기를 통하여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과 언어적 지식을 학습하고 주제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목표언어로 작문한다. 이러한 읽기와 작문을 통하여 학습자들은 주제관련 사전 지식과 심리 언어적 측면의 토론전략을 습득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토론활동을 펼칠 수 있다[5]. Chang은 말하기에서의 사전지식의 역할은 학습자의 유창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말하기 숙련도에 관계없이 학습자들의 사전지식과 배경지식 즉 스키마에 근거한 언어교수법이 학습자들로 하여금 학문적 의사

소통에 익숙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6].

학습자들이 토론에 적절히 참여하기 위해서는 토론 언제 말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언제 말해야 하는지에 관한 전략이 토론전략이다. 적절한 순간에 효과적인 토론전략의 사용이 필요하며 이는 먼저 말을 시작하거나, 개입, 동의, 반대, 설득, 지지, 혹은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사용된다. 그러나 우리 한국 성인 영어학습자들은 토론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토론전략사용의 양상이 단순하고 때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더욱이 구두영어숙련도가 낮은 학습자일 경우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여겨진다.

토론전략의 다른 한 분야는 쓰기에서 말하기로의 모드 전환이다. 학습자들은 처음 읽기 자료를 통하여 배경 지식 및 사전지식을 습득한 후 다시 쓰기 활동을 통하여 정리를 함으로써 특정 주제 관련 스키마를 활용할 수 있다. 활용된 스키마는 소그룹별 대화활동에서 말하기로 모두 전환을 한다. 이때 사용되는 전략들은 반복적인 표현하기(repetition), 대체하기(replacement), 다른 표현으로 말하기(paraphrase), 즉흥적으로 말하기(impromptu)가 있다. 구두영어숙련도에 따라서 위의 전략사용 양상이 다르다. 첫 단계이면서 기초적 전략으로 사용되는 것이 읽기 자료와 쓰기 활동에서 연습했던 문장을 반복하는 것이다. 다음 단계가 대체문장으로 바꾸는 것이다. 원래 익혔던 문장의 내용과 문장구조는 같지만 다른 단어로 대체해서 말하는 것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전략은 원래의 내용과 동일하지만 문장의 문법적 구성을 달리해서 다르게 표현하는 전략이다. 가장 상급의 전략은 즉흥적인 말하기로서 학습자들은 자신의 문장 구조를 새롭게 만들면서 주제를 전달한다.

학습자들이 토론에 참여할 때 토론주제에 맞는 스키마와 토론전략이 필요하지만 토론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심리적인 요소들을 조절할 수 있는 중재자가 필요하다. 한국인 학습자들인 경우 토론참가자 자신이 토론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감정적 요소를 직접 통제하면 좋겠지만 언어숙련도가 낮고 토론전략사용의 미숙함으로 교실 영어환경에서는 교사의 토론 개입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심리적인 요소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 예의 바를 뿐 아니라 다른 토론자의 말에도 주의 깊게 귀 기울이는 것이다.

홍선미는 위의 토론과정의 요소들을 그림 1에서 다음과 같이 도식화했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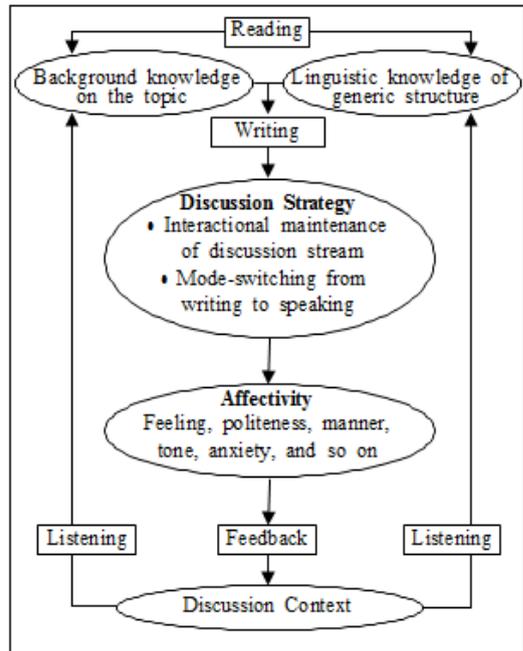


Fig. 1. Realization Process of Discussion Ability

토론유형(discussion context)은 세 가지 의사소통의 유형(찬/반의 이분법적 의사소통, 대인간 의사소통, 소그룹 안에서의 의사소통)중 대인간 의사소통에 해당된다. 대인간 의사소통의 단계는 처음에는 각자 자신을 소개하고, 다음에는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갈등관계를 가져오다가 마지막 단계에서는 토론의 긍정적인 면을 지적하면서 성공적인 결론에 이르기 위한 요점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토론의 과정에서 언급할 점은 학습자의 언어수준과 피드백의 중요성이다. 토론을 잘 하기 위해서 말하기 능력 뿐 만 아니라 듣기능력이 요구된다는 점은 두 말 할 필요 없다. 아울러 다른 토론자들에게 즉각적이면서 적절한 반응을 보여 주어야 한다. 적절한 반응과 대화를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주제관련 읽기활동과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글로 표현한 작문활동에서 스키마적 지식을 선행학습 함으로써 도움을 얻을 수 있다.

3. 수업모형

기존의 말하기 연구논문에서 한국의 EFL 상황에 적합한 토론수업모형에 관한 연구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유사한 논문으로는 전통적 영어회화수업(face to

face communication, FFC)과 컴퓨터매개회화수업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CMC) 혹은 FFC와 CMC를 결합한 교수 상황 중 구두영어숙련도 향상에 적합한 교수법이 무엇인가에 관한 연구논문들이 있을 뿐이다(김성연 2002, 2003, 홍선미 2007). 구두영어숙련도 향상을 위한 연구들은 수업모형에 대한 자세한 단계와 학습활동을 제시하지 않고 수업유형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수업 내 토론활동을 실시하였다는 간단한 기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성인 영어학습자들의 구두숙련도 향상을 위해 토론수업을 제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토론수업의 절차와 학습활동을 제시하려한다.

각 주제 별 수업은 1주일 2시간의 강의를 2번에 한다. 첫 번째 강의는 읽기자료를 소개하고 관련 쓰기 활동을 한다. 두 번째 강의는 그룹 내 토론수업(개인진술, 소그룹 논의, 전체토론)으로 구성된다.

- (1) 읽기활동: 수업 첫 단계로 특정 주제에 대한 사전 지식과 배경지식을 학습자들에게 제공하여 활용하기 위해서 관련 읽기자료를 학생들에게 배포하여 전체 읽기활동을 한다. 어휘와 관련 용어, 문장구조지식에 대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읽기자료에 공간을 배치하여 교사의 설명을 정리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한다. 읽기활동 중 교사의 설명과 질문은 대부분 목표언어로 이루어진다. 관련 어휘 및 용어의 설명과 이를 활용하는 활동가운데 교사는 학습자들과 계속 목표언어로 구 혹은 문장형태로 의사소통한다.
- (2) 쓰기활동: 읽기활동을 통한 주제별 배경지식을 학습자들이 이해한 후 교사는 읽기활동의 확인과정으로서 읽기자료의 다른 공간에서 각 단락 별 주제문쓰기, 요약글쓰기, 사건의 이유, 사건의 예시, 전체 글의 요약문쓰기와 학습자 자신의 의견을 목표언어로 작문하게 한다. 읽기활동에서의 입력(input)활동을 산출(output)활동으로 전환하여 사전지식과 배경지식을 확인한다. 학습자들은 어휘적 표현, 관련 용어, 문장구조, 글의 전개방식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형식적 스키마를 활용할 수 있으며, 내용적 측면으로는 읽기자료에 나온 예의 활용, 읽기자료의 내용을 보완 혹은 수정, 변환을 통하여 학습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3) 개인진술: 개인 활동으로 작문을 마치면 소그룹으로 개인 별 관련 주제에 관하여 학습자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이 때 소그룹의 다른 학습자들은 다른 발표자의 의견을 들으면서 모르는 어휘, 표현, 전체 내용, 혹은 세부적 내용에 대한 질문을 목표언어로 한다. 발표자는 질문에 목표언어로 대답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한 번 더 정리한다. 한편 다른 학습자들은 발표자의 의견에서 장, 단점을 파악하여 다음 전체 토론에서 반대 의견을 예상하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이와 같은 듣기활동을 통하여 토론전략을 연습할 수 있다. 발표자에게 질문하거나, 반복적인 설명 요청, 의견을 주장하는 방식, 진술하는 방식, 혹은 적절한 질문의 시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교사는 소그룹별로 학습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질문의 방식과 태도에 대한 지도를 한다.
- (4) 소그룹 논의: 교사는 전체집단을 4명의 소그룹으로 재편성하고 2명씩 주제에 대한 의견을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학습자들이 가벼운 논의를 하도록 지도한다. 소그룹논의에서는 이전 개인별 진술단계에서 목표언어로 습득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며 토론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언제 말하고,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말해야하는지에 대한 토론유지의 전략과 읽기, 쓰기, 개인진술 단계에서 습득한 내용적, 형식적 스키마를 활용하여 반복적 표현, 대체표현, 다른 표현, 혹은 즉흥적 발화로 예비 토론상황(dyadic communication)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 (5) 전체토론: 교사는 토론의 중재자 혹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특정 주제에 대하여 전체 그룹을 찬성과 반대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교사는 반대 의견집단에게 진술 및 질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연스럽게 토론을 이끌어 간다. 학습자들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논의활동을 통하여 목표언어를 자연스럽게 습득,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이 질문과 대답, 진술의 방법에 대한 토론 전략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토론의 시간이기 때문에 학습동기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물론, 학습자의 언어숙련도 수준의 극명한 차이를 볼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하다.

Table 1. Class Model

Activity	Participants	Teacher
Read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tent schema: main idea, theme sentence, summary ■ formal schema: vocabulary, phrases, structural knowledge, text organiz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troduction of topic ■ explanation of vocabularies, phrases, and structures ■ questions
Wri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tilize vocabularies, relevant phrases, structures and text organization from the material ■ write down main ideas, reasons, examples of the story ■ write down the summary of the story ■ write about personal opinion on the top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eck learners' writings ■ feedback
Individual Stat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dividual presentation ■ make sure to understand the presentation ■ observe how the other learners express their opinions (discussion strateg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eck learners' opinions ■ affectivity
Talk in Small 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actice content and formal schema ■ practice discussion strategies ■ accustomed to dyadic communi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eck the groups
Class-Discus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al time in use ■ follow-up communication: negotiating opinions ■ acquire discussion strateg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scussion facilitator

표 1에서 위의 단계들을 간략히 요약하였으며 토론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스키마적 지식과 토론전략, 읽기, 쓰기, 듣기 활동 간의 유기적 통합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에서 다음과 같이 도식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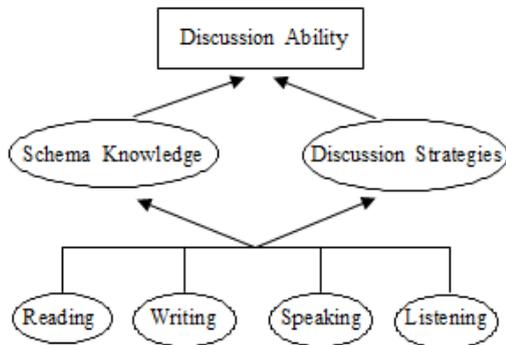


Fig. 2. Integrating Process of Discussion

4. 수업모형 실험

초급 상 혹은 중급 하 수준의 외국어 숙련도를 가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위에서 제시한 토론중심의 영어말하기 수업모형의 교육적 효과를 파악할 실험에서 살펴보겠다.

4.1 연구방법

실험참가자는 서울소재 대학교의 영어과 2학년 영어회화3 수업을 듣는 26명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토론중심의 영어말하기 수업모형대로 진행하였다. 실험참가자 집단은 평균연령이 21세이며 15명의 여학생과 11명의 남학생으로 구성되었다.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18명이고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6명, 해외 어학연수경험이 있는 학생이 2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영어 학습경험은 다양하여 영어숙련도가 동일한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수업시간은 12주 동안 일주일에 두 번 총 4시간씩이며 실험참가자들은 첫 주에 대학에서 지원하는 공인영어말하기 시험 OPIc (Oral Proficiency Interview in computer)을 통하여 사전 영어말하기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전평가결과 실험참가자들의 말하기 숙련도 분포는 초급 중(Novice Mid)에서 중급 상(Intermediate High)까지 5단계의 층을 이루고 있었다.

Table 2. Discussion Topics

Number	Topic
1	Marriage
2	Premarital Sex
3	Getting a Job
4	Death Penalty
5	Boshintang Culture
6	Plastic Surgery
7	Gay Marriage
8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9	Korea Unification
10	Euthanasia

수업절차는 위에서 언급한 토론중심의 영어말하기 수업으로 진행되었고 토론주제의 선정은 학기 전에 학생들 설문조사를 통하여 10개를 선정하였다(표 2). 선정된 토론 주제들은 한국 대학생들의 인지적 능력에 부합하고

실험참가자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참가자들은 수업에서 목표언어로 토론을 해야 하는 부담감을 표출하였다. 12주간의 실험 후 토론식 영어말하기 수업모형의 교육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대학에서 지원하는 OPIc으로 사후평가를 실시하였다. OPIc의 사후평가결과에 오염변인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을 통하여 실험참가자들이 본 실험수업이외에 영어말하기 수업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학기 중 사립영어학원에서의 영어회화수업이나 OPIc 강좌를 수강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4.2 실험결과 및 논의

실험참가자들의 OPIc 사전, 사후점수 변화분석을 통하여 토론식 영어말하기 수업모형의 교수법적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Table 3. Results of OPIc Pretest and Posttest

Level	Score	Pretest(%)	Posttest(%)
Novice Low	1		
Novice Mid	2	3(12)	
Novice High	3	3(12)	3(12)
Intermediate Low	4	15(58)	9(35)
Intermediate Mid	5	4(15)	9(35)
Intermediate High	6	1(3)	4(15)
Advanced Low	7		1(3)
Total (participant)		26(100)	26(100)
Mean		3.7	4.7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급 하에서부터 수준점수로 시작하여 상급 하까지 9점으로 각 단계마다 1점씩 상승하는 점수체계로 부과하였다. 사전평가에서 전체 평균은 3.7이고 사후평가에서는 4.7수준으로 상승하였다. 평균 수준이 전반적으로 한 단계 상승하여 대부분의 수준이 초급 상에서 중급 하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전시험에서 실험참가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초급 하, 초급 중, 중급 하 수준은(21명, 82%) 사후시험에서 전체 참가자의 12명, 47%로 줄고 아울러 사전시험에서 중급 중에서 중급 상까지 18%(5명)를 차지했던 참가자들이 사후시험에서는 53%(14명)를 차지하여 토론식 영어말하기 수업 후 영어말하기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중급 하 수준의 영어말하기 숙련도를 가진 성인학습자의 영어말하기 능력향상을 위

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토론식 영어말하기 수업모형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가정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겠다.

외국어학습자들의 언어숙련도가 낮으면 토론식 영어말하기 수업의 교육적 효과가 없을 수 있으며 교수법의 실현성에 의심을 많이 한다[8]. 그러나 초급 상 혹은 중급 하 수준의 학습자들도 본 연구에서 제시한 토론식 수업모형을 통하여 말하기의 수준이 향상되었다. 위 실험결과로 언어숙련도 수준의 차이에 관계없이 영어말하기 능력의 향상은 수업모형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스키마 지식의 학습과 토론전략의 적극적인 사용으로 영어말하기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 성인 영어학습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급 하 수준 학습자들의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한 토론식 수업모형을 제시하였고 이를 활용한 파일럿 실험을 통해 수업 모형의 교육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언어 숙련도 수준 차이에 관계없이 토론식 영어 말하기 수업 모형은 중급 하 수준 학습자들의 숙련도를 중급 중 이상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다. 실험참가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초급 상에서 중급 하 수준의 학습자(84%)는 실험 후 47%로 감소했고, 중급 중에서 중급 상에 이르는 학습자(18%)는 실험 후 56%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는 수업 모형에서 스키마 지식을 활용하고 토론 전략을 연습시켰던 교수법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토론 주제의 현실성 및 흥미도가 학습자들의 인지적 능력에 부합되었고, 이로 인하여 학습 집중도와 학습 동기를 유발하여 언어 숙련도 향상을 가져올 수 있었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여러 수준의 숙련도를 가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과학적 통계 방법 및 질적 분석을 함으로써 토론식 영어말하기 수업모형의 교육적 효과의 일반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References

- [1] M. S. Ko. "Improving English speaking proficiency with OPIc", *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Instruction*, Vol. 14, No. 1, pp. 21-45, 2010.
- [2] M. S. Ko. "Strategies of storytelling based teaching of English speaking for novice high learne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5, pp. 3172-3179, 2015.

- [3] P. Carrell. "Content and formal schemata in ESL reading", *TESOL Quarterly*, Vol. 21, pp. 461-481, 1987.
DOI: <http://dx.doi.org/10.2307/3586498>
- [4] S. M. Hong. *Class types for Korean English learners to improve discussion ability*, Seoul, Korean Academy Information, 2007.
- [5] D. J. Young. "An investigation of student's perspectives on anxiety and speaking", *Foreign Language Annals*, Vol. 23, No. 6, pp. 539-553, 1990.
DOI: <http://dx.doi.org/10.1111/j.1944-9720.1990.tb00424.x>
- [6] J. T. Chang. *The mask mechanism: A study of anxiety, motivation & communicative competence of korean learners of English i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environm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anchester University, 2002.
- [7] S. Y. Kim. "Korean college students' reflections of English language learning via CMC and FFC ", *Multimeia-Assisted Language Learning*, Vol. 5, No. 21, pp. 9-28, 2002.
- [8] S. Y. Kim "A combination of CMC and FFC: Its effects on Korean students' oral proficiency and attitudes", *English Teaching*, Vol. 58, No. 1, pp. 61-80, 2003.

고 미 숙(Mi-Sook Ko)

[정회원]



- 1989년 2월 : 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영문학학사)
- 2001년 5월 : Oklahoma City University (U.S) TESOL(MA)
- 2006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영어교육학과 (영어교육박사)
- 2006년 9월 ~ 2008년 3월 : 서울시립대학교 교양영어 강의전담
- 2008년 4월 ~ 현재 : 서일대학교 비즈니스영어과 교수

<관심분야>

영어교육, 영어말하기